“한류·K팝의 뿌리는 불교 악가무”

〈樂歌舞〉

윤소희 대우교수, ‘한국불교사연구’서 주장

범어 등 ‘소리글자’ 전래되며
한반도 음악 등 역동성 영향
‘강강수월래’ 장엄염불 원형
조선代 사찰 불교 악가무들
유랑예인 연희돼 K팝 밑거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사진 출처=넷플릭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세계 음악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르는 단연 ‘K팝’이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 ‘골든’은 빌보드 핫100에서 4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보였다. 이처럼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K팝’의 뿌리가 불교 악가무(樂歌舞)에 있음을 조명하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윤소희 동국대 한국음악과 대우교수는 한국불교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불교사연구〉제27호에 게재한 ‘한류와 K팝의 뿌리 불교 악가무’를 통해 한국불교의 악가무가 한류의 뿌리가 됐음을 불교음악사를 통해 고찰했다.

윤 대우교수에 따르면 불교와 함께 서역음악이 중국에 전래되며 중국문화 전반에 유연성을 더했다면, 한반도에 도래한 불교는 범어와 같은 소리글자를 전하며 음악과 춤이 지닌 역동성의 기폭제가 됐다.

삼국시대에 들어온 불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음악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통일신라 고승 원효 스님의 ‘무애가’는 귀족부터 밭가는 노인까지 유행했을 정도(〈파한집〉)로, 이는 한국 민요에도 영향을 줬다.

윤 대우교수는 “세계 민요는 주로 독창이나 합창으로 불리는 데 반해 한국 민요는 메기고 받는 형식을 가진다. 이 같은 한국인의 기질은 세계 유명 뮤지션이 감동하는 ‘코리아 떼창’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고려 국가 제례에 활용되던 불교 악가무는 숭유억불시대인 조선에 와서 세속화되며 민간으로 스며들었다. 윤 교수에 따르면 보렴이나 상여소리 등 민간의 축원과 발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렴은 탁발염불 중 보시염불을 원형으로 하며, 상여소리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등이 후렴으로 메기고 받는다.

민요 ‘강강술래’도 불교를 원형으로 한다. 윤 대우교수는 “강강술래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와 연결되는 장엄염불이 시원”이라며 “이는 관음보살의 현현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를 원형으로 하는 판소리 역시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판소리 ‘심청가’로, 그 원형은 전남 곡성 관음사 창건설화 ‘원홍장 이야기’다.

또한 불교의 사물의식과 사물놀이의 연결성도 주목했다. 윤 교수는 “세계적 사물놀이패를 이끈 김덕수는 사당패 일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5살 때 ‘새미’라는 무동(舞童)으로 데뷔했는데, 자신이 만든 사물놀이의 원류가 사찰의 사물이라고 한 바 있다”면서 “불교의례에 수반되던 제반의 악기무가 걸립패, 사당패와 같은 유랑예인들에 의해 민중화 돼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의 토양이 됐다”고 밝혔다.

고운사 연수전·가운루 정밀수습 완료

국가유산청 지정유산 3건
목부재 등 고운사에 인계
경각심 일깨울 자료 활용



정밀수습조사가 진행된 후의 고운사 연수전(보물) 모습.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소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고운사 연수전·가운루에 대한 정밀수습이 완료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경북지역 산불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조사와 전소된 국가지정문화유산 3건(보물 2건, 국가민속문화유산 1건)에 대한 정밀수습조사를 최근 완료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지정유산은 보물 고운사 연수전·가운루와 민속유산 청송 사남고택으로 각각 6월 9일부터 20일까지, 5월 6일부터 9일까지 정밀수습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정밀수습조사를 거쳐, ‘의성 고운사 연수전’의 부재 283점(목부재 2점·철물 206점·기와 75점), ‘의성 고운사 가운루’의 부재 269점(목부재 113점·철물 151점·기와 5점)을 의성군과 고운사에 인계했다. ‘청송 사남고택’의 부재 72점(목부재 13점·철물 43점·기와 14점·기타 2점)은 청송군에 인계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수습된 부재는 향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전시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밀수습조사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경상북도, 청송군, 의성군이 사전조사부터 수습(현장)조사까지 협력해 진행됐다. 수습한 부재와 조사결과를 청송군, 의성군과 고운사에 인계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산불로 피해를 본 다른 시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수습조사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도 실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산불 피해로 인한 잔해물 정리와 문화유산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27억원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고 ‘의성 고운사 연수전’ 등 산불 피해 문화유산의 복구를 위한 설계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소유자,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증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불로 전소된 국가지정문화유산 3건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현장 조사 및 논의를 거쳐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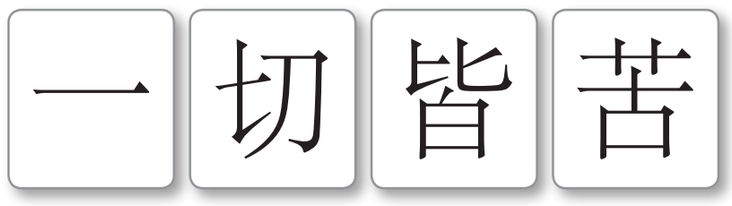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억지로 삶을 긍정하려 하지 마라

④ 일체개고

‘인간이 모두가 팔십을 산다고 해도 /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사십도 못 산 인생 / 아차 한 번 죽어지면, 북망산천의 흙이로구나.’



이는 단가 ‘사철가’의 한 대목으로, 생로병사 인생의 덧없음과 고통을 노래한다. 삶의 허무와 고통을 깊이 통찰한 붓다는 이를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개고(一切皆苦)라 정의했다.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괴로움에서의 해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르코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하느님의 나라’는 억압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뜻한다.

불교 역시 열반과 해탈, 극락왕생을 통해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한다. 하지만 붓다는 복된 삶에 앞서, 괴로움[苦] 그 자체를 분석했다. 이 때문에 불교가 염세적이라고 오해받기도 하지만, 실상을 외면한 채 맹목적 희망을 강조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괴로움은 엄연한 현실이며, 그것에 대한 진단 없는 처방은 위험하다. 수행자라면 반드시 ‘고(苦)’와 먼저 마주해야 한다.

그렇다면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붓다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존재의 고통과 불안, 결핍, 불만족 같은 일상의 실존적 고통을 함께 말했다. 인간은 오온(몸·느낌·관념·의지·식별 작용)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이 구조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보았다.

〈디가 니까야〉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우리는 이렇게 원한다. ‘참으로 그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그리고 ‘참으로 근심, 탄식, 육체적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그러나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존재의 생성과 소멸, 불안과 불만족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실존의 한계이며, 괴로움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외모를 가꾸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혹은 쾌락과 소유로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괴로움이 사라질까? 이 모든 고통을 운명이라 여기고 체념하고 살아야 할까?

불교는 사성제(四聖諦)를 통해 길을 제시한다. 괴로움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받아들여라. 그 원인이 갈애와 무지에 있음을 깨달아라. 그리고 일상에서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하라.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괴로움을 피하지 마라. 괴로움은 적이 아니라, 내 곁에 찾아온 이웃이자 벗이다. 기꺼이 맞이하라.

〈화순 불암사 주지〉

유홍준 관장 “박물관, K-컬처의 뿌리”

국박 7월 21일 취임식 개최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사진〉가 취임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7월 21일 박물관 소강당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유 관장은 박물관이 K-컬처의 근본임을 강조했다. 유 관장은 “시대가 박물관에 요구하는 것도 변화하고 증대해 오늘날에는 급기야 우리에게 K-컬처의 뿌리가 여기에 있음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강렬히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물관의 3대 구성요소는 유물, 건물, 사람”이라며 “박물관이 대국민 서비스 기관임을 잊지 말고 항시 친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